

철학고전강독6

‘신의 죽음’ 이 가르치는 삶의 지혜

: AMOR FATI, 대지와 운명을 사랑하라!

담당교수 정진우

프리드리히 니체

프리드리히 빌헬름 니체 (Friedrich Wilhelm Nietzsche, 1844~1900)는 독일의 문헌학자이자 철학자이다. 서구의 오랜 전통을 깨고 새로운 가치를 세우고자 했기 때문에 '망치를 든 철학자'라는 별명이 있다. 이성적인 것들은 실제로는 비이성과 광기로부터 기원했다고 주장했다.

형이상학과 그리스도교는 세계를 두 개로 구분한다. 니체는 이러한 구분에 반대하며 '대지에서의 삶을 사랑할 것'을 주창하였다. 또한 현실에서의 삶을 비방하는 자들을 가리켜 퇴락한 인간이라 부르며 비판하였다.



그리스도교는 노예도덕이다!

“마음이 가난한 자는 행복하다.
하늘나라가 그들이 것이다” (마 5:3)

약한 자(가난함, 추함, 불행 등을 운명처럼 짊어진 자)는 선한 자
강한 자(고귀함, 아름다움, 행복 등을 거머쥔 자)는 악한 자
니체는 이러한 그리스도교적인 가치관을 노예도덕이라 비판했다.



도덕의 근원은 노예의 원한감정이다!

삶의 고통을 실제로 해소할 수 없기 때문에 상상의 복수를 통해 위안을 얻으려는 마음임을 니체는 르쌍티망 (Resentment: 원한감정)이라고 불렀다. 강자에 대한 부러움과 복수심에 사로잡힌 약자들은 우선 강자는 악하다는 평가를 내리고, 이로부터 약자는 선하다는 평가를 끌어낸다. 모든 도덕은 약자가 자신을 긍정하기 위해 만든 허상(우상)일 뿐이다. 정신승리!





Nothing on earth consumes
a man more quickly than
the passion of resentment.

Friedrich Nietzsche

도덕의 계보 고전강독(1)

〈보복하지 않는 무력감〉은 〈선〉으로 바뀝니다. 불안한 천박함은 〈검허〉로 바뀝니다. 증오하는 사람들에게 복종하는 것은 〈순종〉으로 바뀝니다. 약자의 비공격성, 약자가 풍부하게 지니고 있는 비겁한 자세, 그가 문 앞에 서서 어쩔 수 없이 기다려야만 하는 것은 여기에서 〈인내〉라는 미명이 되고, 미덕으로까지 불립니다. 복수할 수 없는 것이 복수하고자 하지 않는 것이 되고, 심지어는 용서라고 까지 불립니다. 사람들은 또한 〈자신의 적에 대한 사랑〉에 대해서도 이야기합니다. 땀을 뻘뻘 흘리면서 말입니다.



차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

제1부: 10년간 산상의 고독한 생활을 보내던 주인공이 <신은 죽었다>는 깨달음을 얻고 인간세계에 내려와 초인의 이상을 논한다.

제2부: 영원회귀의 사상이 그의 내면에서 성숙해가나, 이를 세계에 전하기에 부족함을 느끼고 성숙한 인식을 위해 산으로 되돌아간다.

제3부: 영원회귀 사상의 성숙을 기다리며 삶의 절대적 긍정을 노래한다.

제4부: 동굴생활을 하던 중 7명의 더 높은 사람을 만난 차라투스트라가 고뇌하는 인간들에게 동정을 품게 된다. 그러나 동정은 그에 대한 새로운 유혹이요 시련일 뿐이다. 그것을 이기고, 성숙한 영원회귀 사상을 알리기 위해 홀로 산을 떠난다.



영원회귀

니힐리즘의 끝에서 니체는 <영원회귀> 사상을 발견한다.
우리의 삶은 어떠한 목적도 없다. 목적이 없는 삶은 놀이다.
목적은 향한 삶은 그 목적을 향해 진보한다. 진보사관에는
처음과 끝이 있고, 시작과 완성이 있다. 하지만 목적이 없는
삶은 그런 직선이 아니라 원환이다. 원에는 시작과 끝이 없다.
매 순간이 시작이다. 이러한 원환이 곧 영원회귀 사상을
상징한다.



초인 Übermensch

〈영원회귀〉에 대한 인식을 통해 모든 가치를 무의미한 것으로 소멸시키고 나면, 유일하게 남는 것은 구원 없는 고통의 삶을 전디는 강인한 존재가 되는 것이다. 그것이 초인이다. 초인은 종교가 약속하는 내세를 거부하며 수난과 고통도 포함된 삶 그 자체를 긍정하는 인간이다. 이것이 곧 운명에 대한 사랑, 즉 아모르 파티(Amor fati)다.

삶은 전디어 살아내는 것이다!



초인이 되는 세 단계

초인은 대지의 뜻에 맞게 살아가는 인간이다. 초인은 고통스런 현실을 그대로 긍정한다. 피안을 위해 대지를 등돌리지 않는다. 피안을 동경한 형이상학의 우상에서 깨어나 아무런 도덕적 속임수 없이 살아가는 인간이다.

니체는 <세 가지 변신에 대하여>에서 초인이 되는 세 단계를 보여준다.

① 신에 대한 맹목적 복종(낙타의 단계), ② 신의 죽음에 대한 자각(사자의 단계), ③ 새로운 가치의 정립(어린이의 단계)



낙타의 단계

낙타의 정신을 지니고 있는 인간이 커다란 짐을 지고 넓고 메마른 사막을 걷고 있다. 낙타는 짐의 소유주가 아닐 뿐더러, 누구를 위하여 어느 곳으로 그 무거운 짐을 날라야 하는지도 모르고 언젠가 있을 보상을 생각할 뿐이다. 낙타는 의무와 금욕의 상징으로 <그대는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타율적 도덕에 복종하는 존재다.



사자의 단계

자신을 괴롭혔던 무거운 짐이 속임수와 기만이라는 것을 깨달은 낙타는 이제 사자로 변하여 포효한다. 그는 자신에게 도덕의 채찍을 가하던 천 년 나이 먹은 용과 싸워 이기고 자신의 세계의 주인이 되고자 한다. 신은 죽었다. 그러나 아직 어떻게 새롭게 살아야 하는지는 깨닫지 못하고, 그저 허무의 심연으로 빠지는 단계다.



어린이의 단계

어린이는 도덕을 모르니 무죄하며, 새로운 시작이자 놀이이며, 스스로의 힘에 의해 굴러가는 바퀴이며, 미래를 향한 거룩한 긍정이다. 어린이는 있는 것을 거짓 없이 그대로 받아들이며, 모든 것은 쉽 없이 늘 되돌아온다는 자연의 질서를 긍정한다(목적 없음/놀이/명랑함).

인생에는 본질과 정답이 없다. 달아날 내세도 없다. 인생은 고달프다. 그것을 받아들이며, 견디는 것이 <운명에 대한 사랑>이다. 운명에 대한 사랑 속에서 자신의 힘을 추구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진정한 인생이다.





WILL SMITH
the **PURSUIT** of
HAPPYNESS

in theaters Dec. 15th

www.sony.com/pursuitofhappyness

©2006 SONY PICTURES DIGITAL, INC. ALL RIGHTS RESERVED.

COLUMBIA
PICTURES



Amor fati!

몇 번이라도 좋다.
이 끔찍한 생이여, 다시!

FRIEDRICH WILHELM NITZSCHE



THANK YOU!

Prof. JEONG, JIN WOO

Department of Philosophy of Religion,

YONSEI UNIVERSITY

philosjw@gmail.com